

## 한국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 고찰\*

김소연\*\* · 강하니\*\*\*

### 국문초록

2000년대 이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본격적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연구 또한 상당한 발전을 경험해 왔다. 한국의 동남아시아 국제개발협력 연구는 단기간 내에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동남아시아 지역 관련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시기별, 주제별 특성 등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다룬 논문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개발협력, 국제개발로 연구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세부 연구주제들도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현지 사례를 통해 국제개발/개발협력의 인식론적 깊이를 더하는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여, 그간 학술연구의 폭은 넓어졌으나 깊이는 깊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의 동남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362-2008-1-B00018)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부교수. soyeunkim@sogang.ac.kr

\*\*\* 서강대학교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석사과정. haneekang@gmail.com

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실비판적/기초학문형 (비판적/대안적) 연구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실용적 관점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주류 담론과 레짐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현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발전 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을 다룬 학제적 연구의 발전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

**주제어:** 동남아시아 연구, 비판적 동남아 연구,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 연구 동향, 문헌 분석

## I. 서론

지난 3-40년 간 메콩지역 개발문제에 헌신한 모리모토 키쿠오<sup>1)</sup>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21세기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더욱 밀착된, 현 시대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국제개발협력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2016년 7월)

오랜 기간 학계가 아닌 현장에서 일하며 고민해온 그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현재 국내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직면한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있다. 2000년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Mawdsley 2017). 글로벌 다중 위기 속

---

1) 캄보디아 씨엡림에 위치한 크메르 전통 직물 센터(IKTT, Institute for Khmer Traditional Textiles) 및 전통의 숲 마을 설립자 이다. 캄보디아 전통 견직물과 전통 양잠의 부흥과 재건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활동 전개했고 2017년 5월 작고하였다(Morimoto(森本喜久雄) 2015 참고).

중국과 같은 신흥국제개발주체의 개발협력이 빠르게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기존의 개발/발전 그리고 개발협력에 관한 물질적, 담론적, 규범적 논의의 근간을 이루었던 포스트-1945 국제개발협력 체제<sup>2)</sup>가 그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김소연 2017).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폭탄 전쟁으로 대표되는 신냉전 상황에서 원조와 개발 협력은 투자, 무역, 이주 등 더 넓은 범위의 ‘국제개발’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공여국에서 ‘국익 추구’는 원조의 주요한 목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추세이다(Mawdsley et al. 2018). 이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개발협력의 소기의 목표인 개발과 발전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토의의 필요성이 높은 시점이나, 국내 국제개발협력 연구는 협의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념과 실용주의적 담론에 치우쳐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개발협력 학계와 동남아시아 학계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심화 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시아지역 관련 국제개발 및 개발협력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간 축적된 연구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국제개발협력’ 혹은 ‘개발협력’은 국내 학계에서 지금까지 흔히 개발협력의 동의어격으로 사용된 ODA<sup>3)</sup> 보다 그 의미와 영역이 넓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2) 제2차세계대전 이후 OECD-DAC 중심으로 진화되어온 국제개발협력체제를 지칭한다. 특히 개도국 경제개발과 복지를 위해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북반구 선진국 지칭)’-‘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남반구 개발도상국 지칭)’ 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규범과 아젠다 또한 포함한다.

3) ‘공적개발원조(ODA)’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지칭하며,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국제개발협력’ 혹은 ‘개발협력’이란 정부와 비정부 주체를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특히 빈곤지역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보장받고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빈곤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반적인 국제개발<sup>4)</sup>의 수단이자 재원이다(Kragelund 2015; Mawdsley 2017 참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국내에서 출판된 대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개발 협력 관련 논문’이며, 분석 자료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특히, ‘학술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학술지, 학술저서 및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자료범위를 제한하여, 국내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학술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연구 (정부정책연구 기관 보고서 및 원조집행 기관의 용역보고서) 자료를 포함하지 않았다.

상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인 3가지 질문을 통해 2000년대 이후 국내 학계에서의 동남아시아지역 관련 국제개발 및 개발협력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의 동남아시아지역 관련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시기와 주제별 특성은 무엇이며, 주로 수행된 연구의 성격은 무엇인가?
2.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관련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 연구

---

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4) ‘국제개발’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ODA’와 ‘개발협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천년 개발목표(M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에 포함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국제개발’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개념인 development(개발/발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장 참고)

의 세부주제는 어떻게 다양화 되어왔는가?

3.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개념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규범적 논의로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떠한가?

## II. 한국의 국제개발학/국제개발협력학

본 장에서는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국내 국제개발협력 연구 분야의 변천과정을 서구에서는 이미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은 개발학(development studies)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2) 학술적 논의 성숙도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문제를 진단하여, 향후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심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 연구주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학 혹은 국제개발협력학 이라고 분류되며, 이는 사회과학 분과학문 중에서도 특히 개발경제학, 인류학, 지리학, 사회학, 정치학, 지역학 등의 하위 연구 분야로 여겨져 왔다(주한나, 손혁상, 이희진 2016). 이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 분야 분류에서도 나타난다. 국제개발협력이 실제로 학술·연구 분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2월 말 박근혜 정부 때부터이며, 그 분류명은 ‘새마을/국제개발협력’이다. <표 1>과 같이, ‘새마을/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류 아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들이 총망라 되어있다.

&lt;표 1&gt; 한국연구재단 새마을/국제개발협력 분류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지역개발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지역개발	도시개발/계획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지역개발	지역경제/정책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지역개발	주택/부동산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지역개발	교통/물류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지역개발	지역문화개발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지역개발	지역환경/자원개발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새마을개발협력(교육/훈련)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새마을개발협력(조직/리더십)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새마을개발협력(공동체/자원봉사)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새마을개발협력(협동조합/사회적경제)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경제개발협력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환경/자원개발협력(산림/환경/에너지)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사회개발협력(농촌/낙후지역)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사회개발협력(사회적자본/거버넌스)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문화/체육협력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공중보건협력(빈곤/건강/삶의질)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안전/평화/갈등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새마을/국제개발협력	난민/이민
사회과학	국제/지역개발	기타국제/지역개발	

출처: 한국연구재단 (2016)

기존의 학술 분류기준을 적용한다면, ‘개발학’ 혹은 ‘국제개발협력학’이라는 분류 하에 필수 이론 별로 하부 분류들이 구분되어야 하나, <표 1>을 살펴보면, 새마을과 국제개발이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 관련 주제들이 기존의 학술적 논의나 명확한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편의적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나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학술 분류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전도 문제 또한 발생시키

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적이다. 기존 학술 논의에 따르면 사회과학 하위에 지역개발과 국제개발이, 국제개발 하위에 국제개발협력이, 그 하위에 국제개발협력의 주요주제로서 새마을개발협력, ODA, 경제개발협력, 환경/자원개발협력, 사회개발협력, 문화/체육협력, 공중보건협력 등의 분류를 두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국내에서 국제개발/개발협력학이라는 분야가 비교적 그 역사가 짧고, 실제로 연구주제로서도 대학과 대학원의 강의주제로서도 아직도 생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위한 본격적 준비가 시작되었던 2006~7년 무렵,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가 설립되었고 이때부터 서서히 국제개발/협력관련 ‘이론’과 논의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때 주로 진행된 논의는 DAC 가입을 위한 정책/제도 및 실무적 수준의 논의였다(이태주 2011). 당시를 현재와 비교하면 물론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국제개발 혹은 국제협력 과정이라는 특정 학과명 아래, 국제개발협력을 하나의 학문적 학위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표 2 >참고). 그러나 이들 학과들은 커리큘럼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술적 논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기 보다는, 외부환경적 요소 즉,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지원, KOICA 개도국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등에 의한 연구와 강의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표 2>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위과정 및 연계/협동과정

지역	대학	학과명
서울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국제개발학과(글로벌거버넌스학과)
	고려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협력전공)
	서강대학교 학부	한국발전과 국제개발협력 연계전공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협력전공)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전공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개발협력 세부전공)
경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개발학과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개발학과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성결대학교 학부	국제개발협력학부(국제개발협력)
	수원대학교 학부	경제학부(국제개발협력)
전북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전남	전북대학교 학부	국제개발협력 융·복합 연계전공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경북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지역개발학 전공
	영남대학교 학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남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개발학과
	부경대학교 학부	국제지역학부(국제개발협력)
충북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교육개발협력전공
충남	극동대학교 국제개발 대학원	국제개발학과
	공주대학교 학부	지역개발학부
강원	순천향대학교 기술경영행정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지역개발학과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주: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 등의 이름으로 학위과정이나 세부전공을 가진 학과로 제한

위와 같은 학술적 분류와 분과학문으로서 국제개발학/국제개발협력학의 발전과정은 크게 두 가지 논의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계 내에서 개발/발전,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론적·개념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 혹은 ‘발전’ 그리고 ‘협력’이라는 사회현상을 존재론적, 인식론적, 규범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전미양, 문현경 2017 참고).

서구에서 학제적 연구 성격이 강한 개발학(development studies)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주류 및 비주류 경제학부터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의 접근방법을 포함하고 있다(Sumner and Tribe 2008). 물론, 여전히 개발학 분야에서는 주류 경제학적 시각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경제환원주의적 접근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로부터 개발에 내재된 구조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속성을 간과했으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분석이 결핍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개발학은 다양한 이론적 논의, 예를 들어 포스트식민주주의(McEwan 2008), 포스트구조주의(Escobar 1995), 포스트개발주의(Rahnema and Bawtree 1997), 그리고 페미니즘(Saunders 2005) 등을 수용하며 개발을 재해석하였으며, 그 인식론적 논의의 깊이와 폭을 점차 확대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개념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문적 논의와 논쟁의 부족은 결국 국내에서 개발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정착하기 어려운 토양을 조성하였다. 물론, 본고의 저자들이 한국의 학계가 서구의 이론과 논의를 무조건적으로 수입하여 추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 성찰성(historical reflexivity)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다양

한 논쟁점들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어온 서구 개발학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Kothari 2005, 2007, 2017),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는 이와 같은 이론적·개념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Kim 2015; 장대업 2015).

우선 서구 개발학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development’<sup>5)</sup> 개념을 (1) 비전(vision), (2) 역사적 과정, 그리고 (3)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일궈낸 노력(deliberate efforts aimed at improvement) 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Thomas 2000: 777). 또한 이러한 접근과 더불어 ‘development’를 역사화(historicise)하는 노력, 즉 식민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냉전, 세계화 등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development’ 이슈를 바라보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Cowen과 Shenton(1996)의 연구를 계기로, ‘development’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신탁적 행위(trusteeship)이자 의도적 과정으로서의 ‘개발’(big ‘D’-evelopment, 대문자 개발) 과 이러한 행위 과정의 결과이자 각 사회의 내재적인 과정으로서의 ‘발전’(small ‘d’-evelopment, 소문자 발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의도적인 개입과 내재적인 사회적 변화 과정으로서의 ‘development’에 관한 논의는 그 후 더 나아가 ‘big ‘D’-evelopment’는 탈식민지화와 냉전의 소용돌이 안에서 정당화되어온 제3세계로의 적극적 정치경제적 개입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리잡았고, ‘small ‘d’-evelopment’는 지리적으로 불균등하며 선천적으로 모순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 되었다(Hart 2001).

5) 여기서 필자가 영문 그대로 development 라고 사용한 이유는, 이 영단어가 한국어의 개발과 발전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국제개발 연구가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 학자들이 영어 단어인 ‘development’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논쟁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자어 번역으로 생겨난 ‘개발(開發 かいはつ)’과 ‘발전(發展 はってん)’이라는 두개의 단어는 열띤 개념적 논의를 유발했다(Kim 2009: 29-30). 타동사에서 유래한 ‘개발(開發: かいはつ)’은 대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거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자원을 활용(혹은 착취)하는 정치경제적 활동을 지칭한다(Nishikawa(西川潤) 2004). 반면 자동사에서 유래한 ‘발전(發展: はってん)’은 좀더 가치 지향적인 것으로 인간의 삶과 사회를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강하며, 이는 “내발적, 자율적인 인간 중심적인 발전”을 지칭할 때 쓰인다(Nishikawa and Noda(西川, 野田) 2001: 17). 두 가지 개념적 논의 모두 위에서 언급한 서구 학계의 논의와도 면밀히 맞닿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학계의 경우 ‘development’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적 논의가 아직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가 (그리고 학계가) ‘development’를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는 국내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이기 보다는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크게 띄고 있으며, 협력대상국과의 협력을 위한 양방향적 접근보다는 공여국의 입장에서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관리/평가하기 위한 일방향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분야 학위과정 커리

클럽 또한 학생들이 개발/발전의 문제에 대해 존재론적, 인식론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능력 보다는 실제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지역별/국가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보다는 전반적 원조행정을 담당할 행정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태주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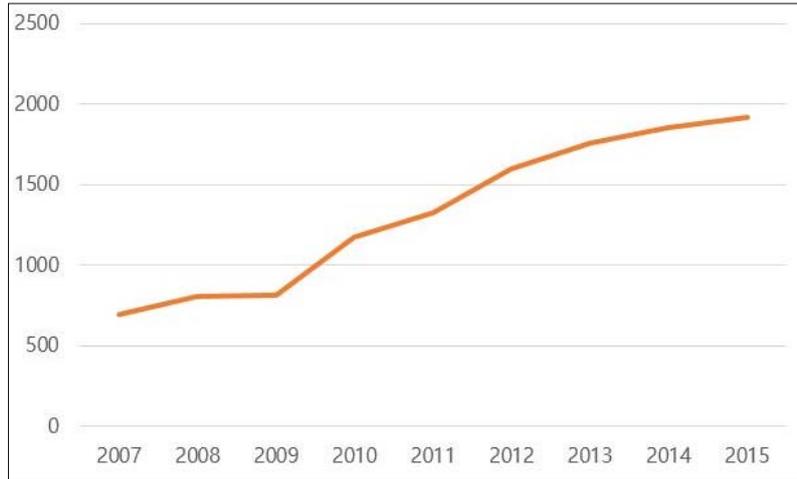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학위과정의 1세대는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던 국제대학원들이다. 이들 국제대학원은 주로 ‘전문대학원’으로 분류되며, 국제학과 등의 학위과정 하에 국제관계, 국제협력, 국제통상, 국제경영, 국제경제협력, 국제개발컨설팅, 국제개발협력 등의 세부전공을 두고 있었다. 공공대학원이나 NGO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 내에서 글로벌거버넌스, 시민사회/NGO 등의 전공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원’과는 달리 석사학위 논문을 쓰지 않고 논문 대체 수업수강이나 인턴십 수료 등을 통한 학위 취득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KOICA 지원으로 개도국 초청 장학생 석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국제대학원들도 있었는데, 개도국에서 온 초청장학생들의 경우에도 공무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학술적으로 파고들기 보다는 자신이 일하는 각 세부 분야(예: 경제개발, 경제협력, 교육, 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나 한국과 자신의 국가 간 경제협력 관계 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고, 실제로 그러한 주제들로 논문을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1세대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전공 석사학위자들이 일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국제학’ 또는 ‘공공행정학’ 등의 학위과정의 ‘세부전공’의 형태로 배출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태주(2011)에 따르면, 이들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개발학 혹은 개발협력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전공교수를 많이 보유하지 못했고, 각 과목의 내용을 심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교수진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로 인해 해당 과정에서는 커리큘럼이 국제개발협력에 특화되기 보다는 국제학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다루었다는 한계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와 대학원에 국제개발협력 혹은 지역학 전공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국제개발협력을 국내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한국정부의 DAC 가입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ODA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확대된 ODA 사업을 수행할 인력 양성의 필요성 역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ODA는 2007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0년과 2015년 사이 연평균 10.2% 라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DAC 회원국 평균 ODA 증가율인 0.5%를 크게 상회하며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림 1>참고) 이러한 예산 확대에 따라, 확대된 ODA사업을 수행할 인력 양성과 훈련 또한 급박 해졌고, 그러한 시대적 필요를 반영하듯 2007년 이후 국제개발협력 학부 및 석박사 학위과정이 많이 생겨났다. (<표 2 >참고) 이때 새롭게 생겨난 학부와 석박사 과정들을 국제개발협력 분야 학위과정 2세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ODA사업의 일환인 개도국 초청 장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학위과정들도 포함된다.

<그림 1> 한국 ODA 증가 추이 (2007~2015 - 순지출, 백만불)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18)

증대된 ODA 예산에 따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2세대 국제개발협력 학위과정들의 경우에도 1세대와 마찬가지로 ODA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담론이나 비판적 문제의식을 다루고, 더 큰 범위의 개발이나 발전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방향보다는 실용주의적 관점과 엔지니어적 관점에서의 교육 훈련에 더 집중해왔다. 물론 최근에는 주요 개발 이론과 비판적 시각에서 국제개발협력과 연관된 내용을 다루는 수업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화되기 보다는 각 교수 개인의 노력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영국 등 개발학이 분과학문으로서 자리 잡은 국가들에서 개발학을 전공한 학생들과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의 초점이 상이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서구 개발학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단순히 사업수행 그리고 재원확보 등과 같은 물질적인 영역(material sphere)만이 아니라 담론적인 영역

(discursive sphere)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1945 국제개발체제의 핵심인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위계에 따른 불평등한 관계가 물질 및 담론적 영역 모두에 명확히 표출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Hyden 2008; Mawdsley 2015), 개발협력의 다면적이고도 다층적인 협력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본고에서 강조한 역사적 성찰성 및 역사화 뿐 아니라 개발협력이 갖는 상호성(mutuality), 복잡성(complexity), 그리고 관계성(relationality)이라는 속성에 대한 주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서구 개발학은 개발협력은 단순히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자원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일련의 위계적 연결고리(chain)가 아닌 (Ostrom et al. 2001), 그들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관계망(web)으로 접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Eyben 2012).

이와 달리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위과정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냉전, 세계화 등 국제개발협력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업한 후 ODA나 NGO의 개발사업 실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개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협력대상국의 정치문제나 거버넌스 취약성, 분쟁, 부정부패, 지역사회 내 갈등, 지역문화 등 ODA에 대해 배우면서는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면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sup>6)</sup> 물론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개발이론이나 담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개발사업 실무에 초점을 둔 전공과정도 있지만, 다양한 전공들 가운데

6) 본고의 저자들이 지난 8-9년간 소위 ‘개발업계’ 종사자들, 특히 석사학위 취득 후 국제개발협력 실무를 수행하는 초급실무자들과 수없이 나눈 대화의 핵심이다. 반대의 경우로, 국내에서 실무를 먼저 경험한 후 영국 등의 국가에서 수학한 경우, 이전까지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핵심인 것으로 생각했던 ‘ODA’가 개발학의 하나의 하위 개념에 불과하며, 개발/발전의 문제는 더욱 광범위한 이슈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뒤늦게 하게 되면서 혼란을 느낀 사례도 있다.

데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학계에서 ODA의 문제를 더 큰 범위의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나 개발/발전의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류적 흐름은 ‘ODA 자격증 제도’를 통한 원조행정전문가 육성,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표되어 왔다. 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지리적 재배치로서 해결하려는 공간적 픽스(spatial fix)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Kim and Gray 2016). 이러한 주류 담론 안에서 학생들과 초급 실무자들의 경우, 개발문제나 발전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기 보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KOICA ODA 교육원 등)을 통해 ODA에 대한 지식을 암기하여 급수별 자격증을 따는데 집중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과 시민사회, 학생과 실무자의 개별적인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개발/발전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며(이태주 2004; 김태균 2016a, 2016b, 2016c; 손혁상, 한재광, 박보기 2011, 한국국제협력단 2014), 이러한 문제의식이 구체적인 학문적 연구결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주한나, 손혁상, 이희진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또한 문제인 것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위과정에서 협력대상국인 개도국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수업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태주(2011)가 명확히 지적했듯, 지역연구 없는 국제개발학 프로그램은 결국 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현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들이 개도국 현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통상적 사업 관리 지식으로만 무장한 개발 엔지니어로서 행동

하게 해왔다. ODA의 문제를 더 큰 범위의 국제개발협력과 개발/발전의 문제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협력대상 국가와 지역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부족한 협력대상국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특히 비판적 동남아지역연구는 더 나아가 지역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개발/발전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논의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동남아 지역연구 내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제를 다룬 논문들’과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 중에서 동남아지역을 다룬 논문들’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Ⅲ. 논문 통계분석 결과

#### 1. 국내 학술지 논문 및 저서

여기에서는 국내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학술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에서 출판된 대 동남아시아 국제개발협력 관련 논문’을 연도별로 목록화하고 대주제와 세부주제별로 구분하였다. 본 장에서의 통계분석 시, 아래와 같은 조작적 정의와 구분 기준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의 각 개념정의는 본 논문에 한정하여 통계분석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며, 본 논문의 저자가 이러한 구분을 학술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 ODA: 협의의 개발협력으로, 정부나 국제기구 등 공적기관이 실행하는 양자간/다자간 ODA를 지칭하며 여기서는 ‘원조’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 개발협력: 위의 ODA를 제외한, 그 외의 공적주체 그리고 비정부주체가 개도국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혹은 참여하는 활동을 지칭한다.<sup>7)</sup>
- 국제개발: 앞의 두 가지 개념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ODA와 개발협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변화를 의미한다. 경제, 정치,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분야/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sup>8)</sup>

데이터 베이스 검색 시 1차 검색에서 지역이나 국가명, 즉 동남아, 동남아시아, 아세안(ASEAN)과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국가명(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싱가포르)을 키워드로 검색 후, 2차 검색으로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해 ODA, 원조,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혹은 등재후보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과 국내에서 출판된 단행본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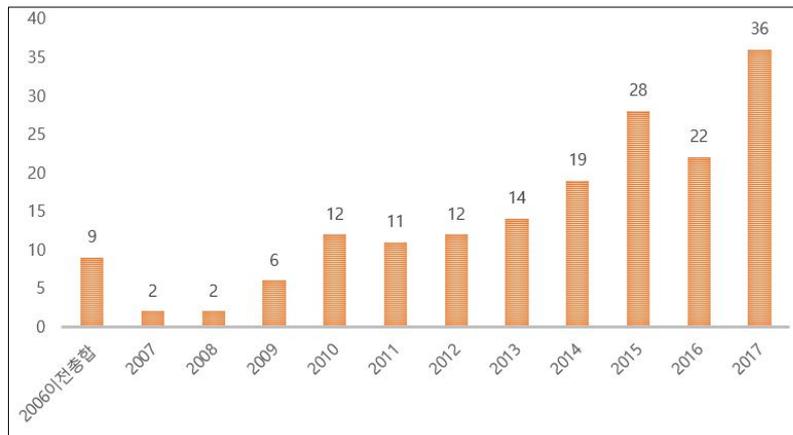
7) 구체적으로는 수출입금융, 무역 보험, 개발NGO활동, 종교나 자선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개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SSC), 삼각협력(Trilateral Cooperation) 등이 있다.

8) 구체적으로는 새천년 개발목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주요 내용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으며, 빈곤/기아 종식, 식량안보확보,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칭한다.

서만을 대상으로 했다.

2000년 이후 2017년까지 출판된 논문 검색 결과, 국제개발에 관련된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논문과 국제개발협력에 특화된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난 논문을 합해 총 176건의 논문이 검색됐다. 이들 논문의 출판 연도별 분석 결과, 2007년<sup>9)</sup>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2015-2017)간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그림 2> 참고)

<그림 2> 학술지 논문 및 저서 수 - 추이.



출처: KERIS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07년 이전 논문 중 개발에 관련된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논문과 ODA에 특화된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난 논문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2007년 이전 출판된 논문에서는 개발협력(56%)이나 개발(33%)을 주제로 한 논문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오히려

9) 2007년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DAC 가입 로드맵’ 마련, 2008년 DAC Special Review 수검 결정 등 DAC 가입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돌입한 해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ODA를 주제로 쓰여진 논문은 11%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학계에서 2006년 이전까지는 ODA라는 키워드가 연구주제로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개발과 개발협력을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세부주제로는 과학기술, 농업, 인권/노동권, 에너지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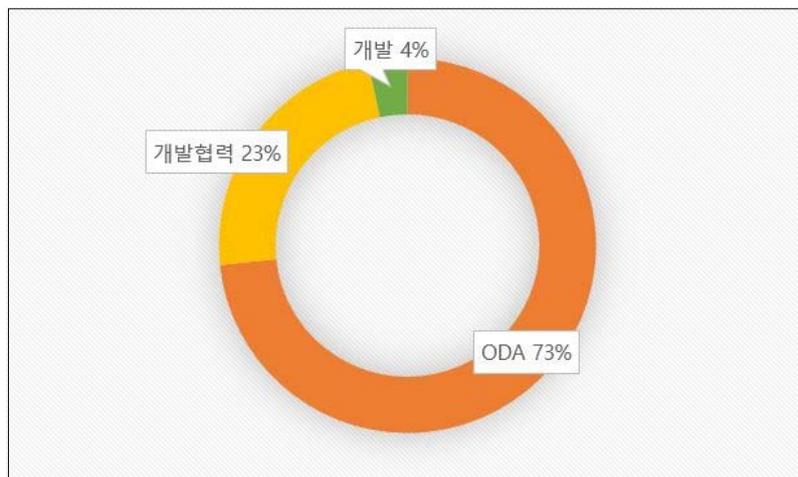
<그림 3> 2006년 이전의 학술지 논문 및 저서 주제별 분류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 판도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하여, ODA라는 키워드가 연구주제로서 국내 학계에서 주요하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림 4>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DAC 가입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ODA 공여액 또한 급증하기 시작한 2007년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열렸던 2011년 사이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ODA를 주제로 출판된 논문은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특히 ODA 이외의 ‘개발협력’ 관련 주제 중에서는 개발NGO 관련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개발’ 관련 주제로는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들이 새

롭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ODA와 개발협력의 세부주제로는 빈곤퇴치, 자원외교, 교육, 농수산림, 거버넌스, 선교, 기후변화, 해양, 이주 등의 이슈가 주를 이루었다.

<그림 4> 2007년-2011년 학술지 논문 및 저서 주제별 분류



<그림 5>에서 나타나듯, 2012년 이후에도 ‘ODA’ 키워드의 강세는 지속되어 전체 연구 중 74%를 차지했다. 또한 ODA 이외 ‘개발협력’ 주제로는 CSR, 개발NGO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종교 기반 개발NGO나 선교를 다룬 논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 외에도 농수산림업, 새마을운동, 교육, 산업기술, 소프트파워, 젠더와 개발, 해양, 역량개발, 선교, 전자정부, 도시화, 사회복지, 에너지, 인프라, 거버넌스, 환경, 보건의료 등의 이슈가 등장했다 일반적인 ‘국제개발’ 관련해서는 무역/통상, 투자, 수력개발, 소액금융 등이 등장하는 등, 과거에 비해 주제가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5> 2012년~2017년 학술지 논문 및 저서 주제별 분류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발표된 학술논문 중에서 주류를 이루는 ODA 키워드의 논문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논문이 한국의 대 동남아 지역 개발원조(ODA) 사업의 평가 및 타공여국 벤치마킹, 한국의 개발협력 비교우위를 강화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무역/수출 혹은 투자와 연계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대다수의 연구가 정책이나 사업 분석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적 증가에 비해 개발의 개념, 담론, 의미, 시각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다룬 연구보다는 각 섹터별 개발협력 방식(how to)과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한계가 아직도 뚜렷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동남아지역의 현지 사례를 통해 국제개발/개발협력의 인식론적 폭과 깊이를 넓히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논문 수의 급격한 증가와 연구주체의 다양화로 연구의 폭은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학술적인 논의의 깊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향후 더 심도 있는 동남아지역의 현지사례분석을 통해 이론적, 개념적 논의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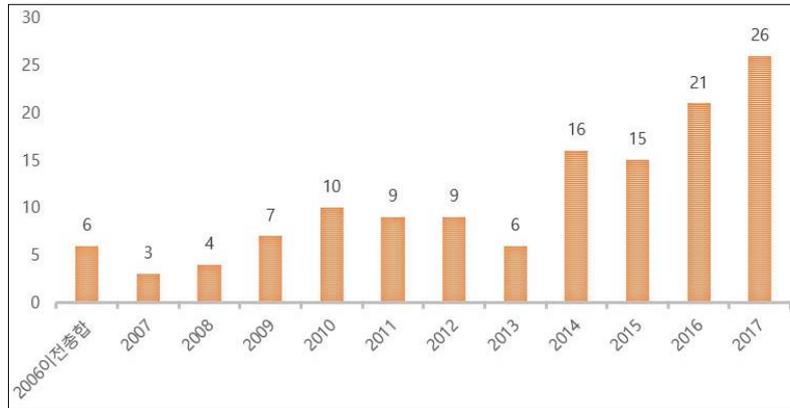
학술지 논문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학술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에서 발표된 대 동남아시아 국제개발협력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을 연도별로 목록화하고 대주제와 세부주제별로 구분하였다.<sup>10)</sup> 학술지 논문과 마찬가지로 1차 검색(지역/국가명)과 2차 검색(국제개발협력 주제어) 과정을 거친 결과,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2건의 논문이 검색됐다. 학술지 논문과 마찬가지로 2006년까지는 거의 출판되지 않다가, 2007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최근 5년간(2014년 이후) 급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참고)

2006년까지 출판된 논문의 경우, 총 6건 중 경제협력관계 등 ‘국제개발’의 문제를 다룬 논문이 3건, ‘ODA’를 다룬 논문이 2건, ‘개발협력’을 다룬 논문이 1건이었다. 2007년 이후에는 ODA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시기에서 학술지 논문에 비해서 ‘ODA’의 비중이 상당히 낮고, ‘개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술지에 비해, 국제개발협력이나 동남아시아학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과 연관된 주제로 논문을 쓴 경우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일부 기인하나, 더 넓은 의미로의 국제개발협력과 개발 문제로 학문적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

10) 석박사 학위논문은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술 연구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근의 학술연구의 경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개도국 초청 장학생들의 논문도 포함(전체 132건 중 27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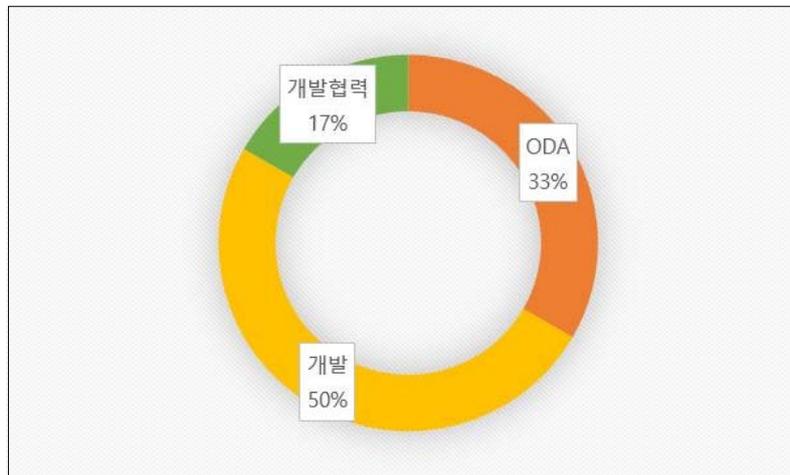
다. (<그림 7, 8, 9> 참고)

<그림 6> 석박사 학위 논문 -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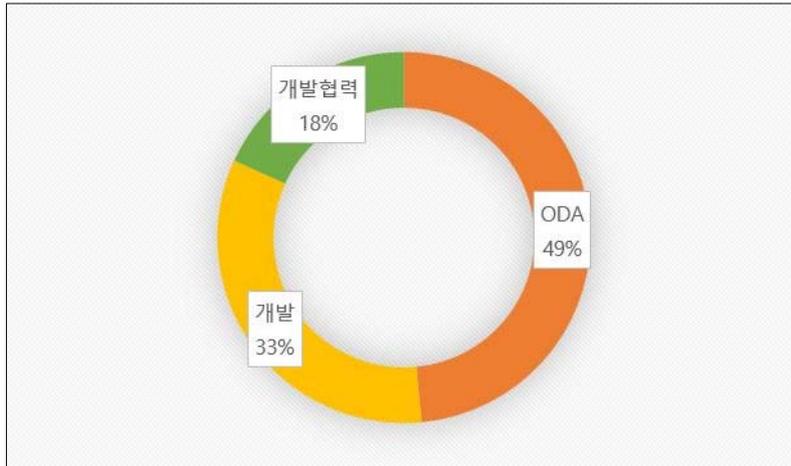


출처: KERIS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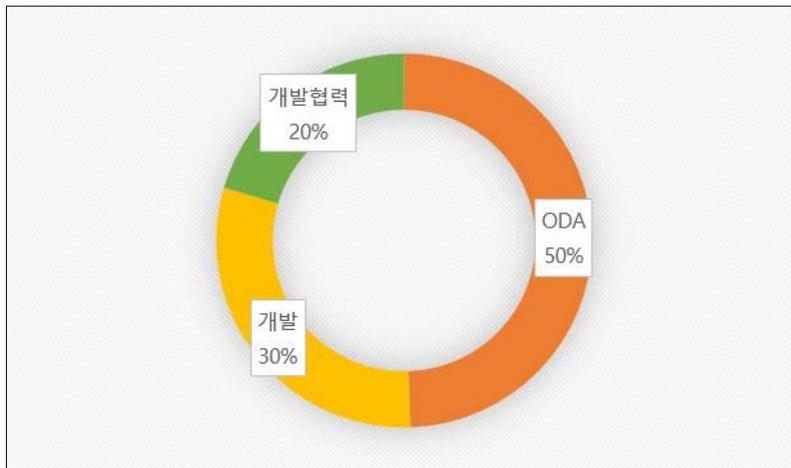
<그림 7> 2006년 이전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별 분류



<그림 8> 2007-2011년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별 분류



<그림 9> 2011-2017년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별 분류



<그림 10>의 세부 주제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ODA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ODA 정책, 전략, 원조효과성, 원조사업 관리 등의 비중이 14%를 차지했다.<sup>11)</sup>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 ODA의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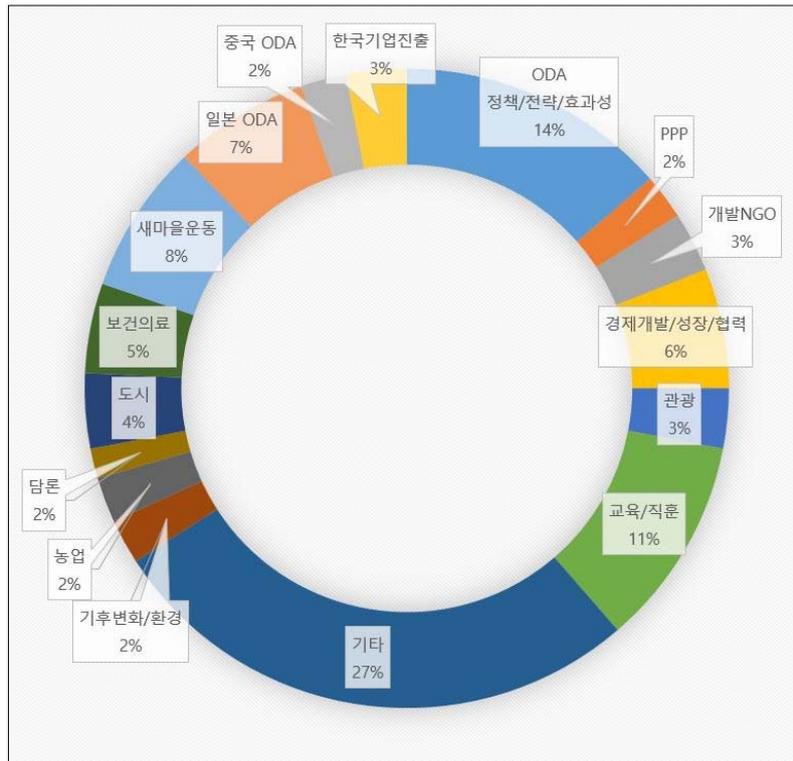
대상인 일본의 대동남아 ODA에 대한 연구나 한국과의 비교분석 연구가 7%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중국 ODA에 대한 연구도 2%를 차지했다. 교육/직훈(11%), 보건의료(5%), 농업(2%)과 같은 ODA의 섹터별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최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온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는 8%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술지 논문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를 경제협력이나 자국 기업의 현지 진출 문제와 연결시키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경제개발 혹은 경제성장,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연구가 6%를 차지했고, 한국기업진출(3%), 민관협력-PPP(2%)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주제로는 기후변화/환경, 재생에너지, 도시, 이주, 투자, 관광, 문화교류, 사회적 경제, 무력 갈등, 군사 및 방위 등 기존의 ODA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석박사 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근 연구 경향은 주제의 다각화 및 확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개발협력을 경제협력이나 공여국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도구적 시각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국제개발협력 담론이나 레짐에 대한 비평이나 비판 혹은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흐름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학위논문의 경우, 시기별로 구분 시 논문 수가 적은 문제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 전체 시기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0> 2000-2017년 석박사 학위 논문 세부주제 구성



#### IV. 비판적 동남아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

신윤환(2015)에 따르면 현실적 기여 측면에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는 다음의 네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현실지향적·문제해결형 동남아연구로, 정책연구, 전략연구, 보고서 및 안내서 등이 포함되며,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정부 연구비와 시장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패권적 특성을 지닌다. 둘째는 현실비판적·문제해결형 동남아연구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등의 문제에

대항하는 행동지향적 운동가와 운동단체들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학문적 전문성과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세번째인 현실순응적·기초학문형 동남아연구는 가치중립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패권적 동남아 담론을 확산시켰다. 여기에는 가치중립적 사회과학적 연구와 가치상대주의적 인문학적 연구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현실비판적·기초학문형 동남아연구는 기존의 주류적 담론에 도전하여, 비판적이면서도 대안적인 사고와 분석에 기반한 독창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 앤서니 리드(Anthony Reid) 등의 학자들이 가치지향적이며 비판적인 동남아 연구의 대표적 학자들이다.

특히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가 기존의 지역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세 가지의 특징은 향후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비판적 지역연구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기존의 지역연구자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담론에 순응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지역지식을 수집하여 정리하는데 집중한 것에 반해, 비판적 지역연구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현상이 아닌 그 이면을 탐구한다. 이들은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나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계속한다. 둘째, 비판적 시각을 가진 동남아 지역연구자는 분과학문의 구분선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각 분과학문의 틀에서 기존 이론에 기대어 현상을 해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제적인 덕목을 발휘하여 그 틀을 초월하는 시도를 했다.<sup>12)</sup> 셋째, 비판적 지

12)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는 인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Negara(1980)>를

역연구는 연구자 각자의 철학과 가치를 담는다.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위험과 혼란으로 인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다중위기의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학계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논의와 토론을 가능케 하는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 지역연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의 국제개발협력 또한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서구 ‘선진공여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긴축재정으로 원조 예산을 상당 부분 감축 또는 동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전통적 원조규범(OECD/DAC norms) 또한 힘을 잃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같은 신흥국제개발주체의 개발협력이 빠르게 그 영향력을 넓히며, 기존의 개발/발전 그리고 개발협력에 관한 물질적, 담론적, 규범적 논의의 근간을 이루었던 포스트-1945 국제개발체제를 그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 위해서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나 개념에 대

---

통해 정치학자들이 발견해 내지 못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았다. 정치학자인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기존의 정치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에서 한걸음 더 들어간 역사적 연구를 통해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1983)>를 저술했고 이 책은 역사학계에서도 널리 읽히고 있다. 역사학자인 앤서니 리드(Anthony Reid)는 기존의 역사가들이 보지 않던 문화라는 주제를 파고들어, 기존의 인류학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저술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The Lands Below the Winds(1990)>를 남겼다.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 또한 정치학자이지만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2008)>라는 인류학 저술,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2009)>라는 역사학 저술을 남겼다.

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비판적 동남아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었던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지역학과 각 분과학문의 틀에 연연하지 않고, 연구자 각자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이론과 분석을 유연하게 접목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비판적·대안적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경향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안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의 규범적인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새로운 시각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과 발전이라는 커다란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또한 가능케 할 수 있다.

##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의 동남아시아지역 국제개발 및 개발협력과 관련된 연구를 동향 분석을 통해 그간 축적된 연구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에서 출판된 대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을 연도별로 목록화하고 대주제(ODA, 개발협력, 개발) 및 세부주제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시기별로는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연구주제가 다양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의 개념, 담론, 의미, 시각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다룬 연구보다는 각 섹터별 개발협력 방식과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한계가 명확했다. 동남아시아의 현지 사례를 통해 국제개발/개발협력의 인식론적 폭과 깊이를

넓히는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여, 현재의 국제개발협력 담론이나 레짐에 대한 비평이나 비판 혹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근본적 지형변화 가운데에서, 한국의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도 현실지향적·문제해결형 연구, 현실비판적·문제해결형 연구, 현실순응적·기초학문형 연구를 넘어서 현실비판적·기초학문형 연구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개발협력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지리적 스케일(scale)과 행위자 간의 관계망(web)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강조한 역사적 성찰성 및 역사화 뿐 아니라 개발협력이 갖는 상호성(mutuality), 복잡성(complexity), 그리고 관계성(relationality)이라는 속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 시각, 이론, 행위자, 주제를 통한 학제적 연구 그리고 특히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성에 주목하고 연구를 심화해갈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봉착한 한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국제개발협력을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 및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만들어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구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영문

Cowen, M. P., and R.W. Shenton. 1996. *Doctrines Of Development*. Routledge.

Escobar, Arturo.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yben, Rosalind. 2012. *Relationships for Aid*. Taylor & Francis.
- Hart, Gillian. 2001. "Development Critiques in the 1990s: Culs de Sacand Promising Path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 (4): 649-58.  
<https://doi.org/10.1191/030913201682689002>.
- Hyden, Goran. 2008. "After the Paris Declaration: Taking on the Issue of Power." *Development Policy Review* 26 (3): 259-74.
- Kim, Soyeun. 2009. "Transl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reening of Japan's B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9 (2): 24-51.
- Kim, Soyeun. 2015. "The (Im)Possibility of Korea's Development Studies." In *Rethinking Development Studies in Southeast Asia: State of Knowledge and Challenges*. Chiang Mai University: RCSA.
- Kim, Soyeun and Gray, Kevin. 2016. "Overseas development aid as spatial fix?: Examining South Korea's Africa policy." *Third World Quarterly* 37(4): 649-664.
- Kothari, Uma, ed. 2005. *A Radical History of Development Studies: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Ideologies*. Zed Books Ltd.
- Kothari, Uma. 2007. "Geographies and Histories of Development." *Journal Fur Entwicklungspolitik (Austri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3(2):28-44.
- \_\_\_\_\_. 2017. "Opening Plenary: Contesting Reconfigured Boundaries: Migration and Development." EADI NORDIC 2017 Conference: Inequality in a globalised world, 20-23 August, Bergen, Norway.

- Kragelund, Peter. 2015. "Towards Convergence and Cooperation in the Global Development Finance Regime: Closing Africa's Policy Space?"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8 (2): 246-262.
- Mawdsley, Emma. 2017. "Development Geography I: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vergence between 'North' and 'Sout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1 (1): 108-17.
- Mawdsley, Emma, Warwick E. Murray, John Overton, Regina Scheyvens, and Glenn Banks. 2018. "Exporting Stimulus and 'Shared Prosperity': Re-Inventing Foreign Aid for a Retoliberal Era." *Development Policy Review*, n/a-n/a. <https://doi.org/10.1111/dpr.12282>.
- McEwan, Cheryl. 2008. *Postcolonialism and Development*. Routledge.
- Ostrom, Elinor, Clark Gibson, Sujai Shivakumar, and Krister Andersson. 2001. "Aid, Incentives, and Sustainability -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Development Cooperation - Summary." 02/01. Sida Studies in Evaluation. Stockholm, Sweden: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http://www.sida.se/Svenska/publikationer/124320/aid-incentives-and-sustainability---an-institutional-analysis-of-development-cooperation---summary/>.
- Rahnema, Majid, and Victoria Bawtree. 1997. *The Post-Development Reader*. Zed Books.
- Saunders, Kriemild. 2005. *Feminist Post Development Thought: Rethinking Modernity, Post Colonialism and Representation*. Zubaan.
- Six, Clemens. 2009. "The Rise of Postcolonial States as Donors: A

Challenge to the Development Paradigm?" *Third World Quarterly* 30 (6): 1103-21.

Sumner, Andrew, and Michael A. Tribe. 2008.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Theories and Methods in Research and Practice*. SAGE.

Thomas, Alan. 2000. "Meanings and Views of Development." In *Poverty and Development*, edited by Tim Allen and Alan Thomas. OUP Oxford.

#### 한국어

김태균. 2016a. "조력자에서 주창자로: 한국 국제개발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담론201 제20권 3호*, pp.111-155

\_\_\_\_\_. 2016b. "국제개발에서 사회발전으로 - 한국 사회의 국제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사회발전론의 재조명" *경제와 사회* 109: 229-261

\_\_\_\_\_. 2016c. "개발원조의 인식론적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론 - 국익과 인도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50(1): 105-131

김소연. 2017. "새롭게 부상하는 동남아시아의 남남협력국: 태국을 중심으로", 심주형, 김소연, 이한우, 배기현, 윤대영 저, [열린 동남아초국가적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 69-107.

손혁상, 한재광, 박보기 2011.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관계 연구: OECD DAC 회원국의 NGO 지원정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7(4): 105-136

신윤환. 2015. "연구논문 : 한국의 동남아연구: 반성적 회고. 동남아시아연구", 25(4): 37-75

- 이태주. 2004. “국제개발의 인류학적 연구와 평가 및 정책 참여 - 국제개발 인류학을 위한 시론” *비교문화연구* 10(1): 221-248
- \_\_\_\_\_. 2011.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인류학적 지역지식의 접목.” *직업능력개발연구* 14 (1): 173 - 94.
- 장대업. 2015. “한국국제개발학 진단 기획세션 3 (개발이론, 교육, 보건) 토론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미양, 문현경. 2017. “사회과학연구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중요성: 주관적 웰빙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2): 31-57.
- 주한나, 손혁상, 이희진. 2016. “한국의 국제개발 연구 동향과 과제: 1956-2015 학술 논문 분석” *국제지역연구* 20(4): 3-34
- 한국국제협력단. 2014. 『개발학 강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인류학의 관점으로 바라본 개발학의 모든 것』 푸른숲
- 한국수출입은행. 2018. ODA 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index\\_outer.html](https://stats.koreaexim.go.kr/index_outer.html)
- 한국연구재단. 2016. 학술연구분야분류.  
[http://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http://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 일본어

- Nishikawa, Jun and Noda, Mari 西川潤, 野田眞里. 2001. Buddhism, development, NGO: leaning the wisdom of coexistence from Thai development monks 『仏教・開発・NGO—タイ開発僧に學ぶ共生の智慧』. 東京: 新評論. Tokyo: Shinhyoron
- Nishikawa, Jun 西川潤. 2004. Theory and policy of endogenous development: the case of China's inland area 「内發的發展の理論と政策 - 中國内陸部への適用を考える」 *The Waseda*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no. 354  
(February): 36 - 43.

Morimoto, Kikuo 森本喜久雄. 2015. *A Japanese man who built a village in Cambodia: A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that attracted the world's attention* 『カンボジアに村をつくった日本人: 世界から注目される自然環境再生プロジェクト』. 東京: 白水社.

#### 인터뷰

Morimoto, Kikuo 森本喜久男(모리모토 키쿠오). 2016년 7월 26일.  
Peak Snaeng Commune, Angkor Thom District, 캄보디아.

(2018.04.15. 투고, 2018.04.18. 심사, 2018.05.08. 게재확정)

<Abstract>

A Review of Southeast Asia-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 Studies in Korea:  
Exploring a Possible Contribution from the  
Critical Southeast Asian Studies

KIM So-Yeun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KANG Ha-Nee

(Graduate School, Sogang University)

Domestic debat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has hitherto been rather more focused on the narrow topic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therefore, practical and practice-oriented enquiries for the former’s effective implementation have dominated the field as a result. However, such lack of foundational debates on ‘development’ has rendered the field inept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development landscape since the new millennium both globally and in Southeast Asia. With this particular problematique in mind, the paper argues for the utility of critical Southeast Asian studies in enriching theoretical debates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In doing so, we analysed the trend of academic research published since 2000, of which theme concern international

development with a specific geographical focus on Southeast Asia. The result shows that such publication and the thematic issues have witnessed rapid quantitative growth since 2007 - while the nature of the publications still clearly remained practical and practice-oriented for effective execution of ODA. We therefore propose the critical Southeast Asian studies to overcome the problematique above by emphasising more inter-/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hat challenge the hegemonic paradigm in the field.

**Key Words:** Southeast Asian Studies, Critical Southeast Asian Stud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search trend analysis